

월드컵 열기 '시들' 특수도 사려져

4년마다 열리는 지구촌 축제인 월드컵 조별 게임이 한창인 가운데 월드컵에 대한 관심과 마케팅 열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다.

국내에서 월드컵에 대한 열기는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의 4강 신화를 기점으로 축구대표팀에 대한 인기가 치솟았고, 이후 박지성 등 선수들이 해외로 진출하면서 축구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스포츠 채널에서도 해외 리그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해외 빅클럽에서 활약을 펼치는 선수들이 총 출동하는 월드컵은 축구팬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이슈였기 때문에 월드컵 전 후로 분위기가 고조됐었다.

하지만 올해는 6·13지방선거, 북·미 정상회담 등 굵직한 국내외 정치 사회 이벤트가 잇따르면서 월드컵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한풀 꺾인 모양새다.

대형 이슈에 묻히고 기말고사 겹쳐 관심권 밖 승리기원 이벤트 없고 스포츠 용품점도 한산

미 정상회담 등 굵직한 국내외 정치 사회 이벤트가 잇따르면서 월드컵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한풀 꺾인 모양새다.

또 멕시코, 독일 등 강호들과 한조에 리그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해외 빅클럽에서 활약을 펼치는 선수들이 총 출동하는 월드컵은 축구팬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이슈였기 때문에 월드컵 전 후로 분위기가 고조됐었다.

하지만 올해는 6·13지방선거, 북·미 정상회담 등 굵직한 국내외 정치 사회 이벤트가 잇따르면서 월드컵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한풀 꺾인 모양새다.

있는 팀들의 기량이 매우 뛰어난데다 정상회담, 선거 등 다른 이슈들 때문에 언론 노출도 적어지면서 관심에서 멀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학가에서도 취업난과 기말고사 기간이 겹쳐 별다른 응원전은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전남대 관계자는 "경기 날짜가 기말고사 기간(18~22일)과 겹치는데다 취업난으로 축구에 대한 관심이 없어 별도의 응원전을 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낮은 관심 속에 술집, 음식점 등이 벌이는 기간 한정 이벤트마저 찾아보기 힘들다.

남구 봉선동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김 모씨(52)는 "지난 월드컵전에서는 대표팀 승리 기원 차원에서 곁을 내놓을 때 마다 맥주나 안주를 서비스로 제공했지만 이번엔 대형 스크린에 경기 중계를 트는 것이 전부다"고 말했다.

스포츠용품 관련 업체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통상 월드컵 등 행사를 앞두고 축구 관련 용품의 매출이 꾸준히 상승했지만 이번 월드컵에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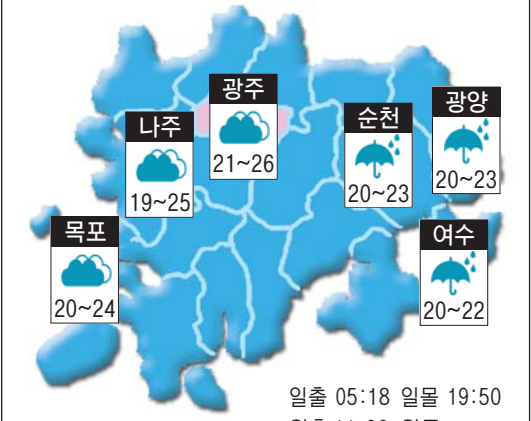
동구 대인동 H체육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유니폼이나 축구공 등 관련 용

품 매출이 월드컵 개막 전후로 증가했지만 올해는 전혀 없다"며 "30년째 장사를 해왔지만 이번처럼 월드컵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 적은 처음인 것 같다"고 전했다.

월드컵 특수를 기대했던 배달업체도 덩달아 울상이다.

광주 남구 주월동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장 모씨(31)는 "과거 월드컵엔 개막에 맞춰 주문량이 2배 가량 늘었지만 이번 월드컵 개막 경기 때는 평상시 매출과 비슷해 예전 같은 분위기가 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만약 첫 경기인 스웨덴전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향후 게임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고 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용현 기자

오늘의 날씨



장성	18~24	흑산도	18~22
담양	19~25	구례	19~24
화순	19~24	곡성	18~24
영광	19~25	완도	20~24
함평	20~25	강진	20~24
무안	19~24	장흥	19~24
영암	19~24	해남	19~25
진도	19~24	고흥	18~23
신안	20~25	보성	18~22

목포	만조 06:31 18:43	여수	만조 01:05 13:27
	간조 11:38 23:46		간조 07:13 19:26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선착장서 핸드폰보며 걷다 '퐁당' 뒤어든 남편과 사투 끝에 해경에 구조

선착장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걷다 바다에 빠져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오후 9시 30분께 목포시 북항선착장 앞 해상에서 사람이 빠져 안벽을 붙잡고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신고접수 4분만에 현장에 도착한 북항파출소 직원들은 안벽을 붙잡고 있는 김 모씨(56)와 박 모씨(46·여)를 발견하고 구명환 등을 던져 무사히 구조했다.

김씨와 박씨는 특별한 외상은 없었지만 저체온증을 호소해 응급처치를 받았다.

18일 해경에 따르면 가족과 함께 산책 나온 박씨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다로 추락했다.

남편은 부인을 구하기 위해 곧바로 뛰어들었으나 안벽을 오르지 못하고 붙잡은 채 사투를 벌여야 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선착장이나 방파제에서는 실족이나 작은 실수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휴대전화 등을 보며 걷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목포=김동균 기자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1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비정규직 완전 철폐 등을 촉구했다. /김태규 기자

'가짜 영광굴비' 650억대 사기 백화점·마트·홈쇼핑 등 유통...검찰, 17명 기소

10년 가까이 수백억 원대 가짜 영광굴비를 판매해온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준영 부장검사)는 중국산 참조기를 영광굴비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 위장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 모씨(60) 등 15개 업체 관계자 4명을 구속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 등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산 참조기 5,000t을 영광산 굴비로 꾸며 대형 마트, 백화점, 홈쇼핑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들어온 중국산 참조기 가격만 해도 2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등이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시장에 판매한 금액은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최소 6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간 당국에 적발된 가짜 영광굴비 사건의 범행 규모로는 사상 최대 수준

이다.

검찰은 중국산 참조기 수입 물량 중 상당수가 가짜 영광굴비를 만드는 데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중국산 참조기의 수입 물량은 연평균 3만t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수산물의 이런 특성은 물론 일부 짝동 제조업체들이 영광굴비 산업 전체에 미칠 악영향을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점인 원산지 표시 관련 법령을 어기고 부당이익을 취한 것은 결국 소비자 선택권을 크게 침해했다는 판단이 우선시됐다. /연합뉴스

강진서 알바 나간 10대 여학생 사흘째 실종

강진에서 10대 여학생이 사흘째 소식이 없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전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강진에 거주하는 10대 A양이 지난 16일 오후 2시께 집을 나선 뒤 행방불명됐다.

A양은 실종 전 SNS에서 친구들과 '아버지 친구를 통해 아르바이트하러 나간다'고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양 아버지

친구이자 A양 가족과 평소 잘 알고 지내던 B(51)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B씨는 지난 17일 강진의 한 철도 공사 현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인력 500여명과 헬기 2대 등을 투입해 A양을 찾고 있다.

경찰은 A양의 마지막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지점 일대를 집중 수색하고 있다.

/고광민 기자

확장 OPEN

광주·전남 총판 최다 판매점

LG, 삼성, 대우디스플레이, 캐리어 100% 국내산

TV 메뉴		가전제품	
24인치	15만원	에어컨6평	35만원
32인치	16만5천원	세탁기	24만5천원
40인치	30만원	냉난방기7평	49만원
43인치	34만원	냉장고182L	24만원
49인치	38만원	3양문형냉장고	68만원
		김치냉장고	47만원
		드럼세탁기	37만7천원
		싱크드럼건조기	114만원
		공기청정기	25만원
		전자렌지	5만9천원

호텔, 모텔, 병원, 원룸, 오피스텔, 사무실, 노래방 당구장, 골프장, 상가 등
TOPTV 리움 062) 365-3100, 1588-3089

태양광 바겐세일

3~10Kw 발전소 상담 LG·한화·현대

태양광 480만원

주택용 상가용

초기설치비용 없음

(A/S 10년, 모듈 25년 보장 / 농협 전액융자)

태양광 설치시 전기 요금 90%절감

태양광 설치 전	태양광 3Kw 설치 후	설치 전후
사용전력량(월)	요금(월)	요금(월)
350Kw	61,000	1,420
450Kw	101,000	9,600
550Kw	169,000	25,000
650Kw	256,000	49,000

전문 상담직원 상시대기 010-6869-3100
농, 어촌, 주택, 상가, 전원주택, 펜션, 축사 등.